

사회계층에 따른 외동아와 형제아의 부모양육태도 및 사회정서발달의 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by Social Stratification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도 미 향
국립상주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윤 지 영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Professor Do, Mi Hyang
Dept. of Child Welfare, Sanju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Youn, Ji 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if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by social stratification. The subjects were 426 4th and 6th grade students in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and Kyonggi-do.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WIN computer program. Two-way ANOVA were performed.

The first conclusion is that there is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by social stratification, but there aren't meaningful differenc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And the second conclusion is that there is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 교신저자 : 윤지영(E-mail: powerlife@dreamwiz.com)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by social stratification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주요어(Key Words) : 사회계층(social stratification), 외동이(only children), 형제아(sibling children), 부모양육태도(parental rearing attitude), 사회정서발달(socio-emotional development)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학력이 점점 높아지고, 해마다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여성들은 자녀를 적게 낳게 되고, 이에 따라 외동이를 갖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외동이의 수가 정점에 이르렀다. 통계청(2002) 조사 결과 2002년도에 우리나라 가임(可妊) 여성이 평생 동안 갖는 평균 자녀수는 1.17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년 전인 1970년에는 4.53명에 비하면 약 30년 동안 자녀수가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한자녀의 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학자들의 외동이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게 되었는데, 많은 연구에서 외동이는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인성과 사회적 행동을 갖는 것으로 보는 부정적 견해들을 지배적으로 나타내어 왔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느낌과 의도, 그리고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게 되는 등의 중요한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이지선, 유안진, 1994),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는 형제자매와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동이는 부모의 과잉보호적 양육태도와 불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거나 의존적인 행동특성을 야기 시키는 사회정서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김재은, 1997; 류향자, 1999; 조진선, 1999; 정승길, 1996).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외동이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이 크게 바뀌어지고 있다. Falbo와 Polit(1986)는 외동이 집단과 형제아 집단의 개인 성격을 비교한 결과 외동이 집단에서 오히려 성취욕 및 자존심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류향자, 1999 재인용). Susan Newman(2001)은 외동이가 이기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지만, 지금은 한 자녀 갖기가 보편적

인 양육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형제아에 비해 외동이가 부모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부모와 1대 1로 지적 자극을 받을 기회가 많아 행복감도 높고 학업능력도 앞선다고 하였다.

또한 외동이와 형제아 사이에 사회정서발달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송나리, 박성연, 1993). 그리고 만약 형제의 존재 혹은 부재가 아동의 사회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형제유무 그 자체가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외동이에 있어서는 그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서희정, 1995). 이것은 외동이와 형제아의 부모양육태도 및 사회정서발달과 사회계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인간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속한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강경중, 1993).

따라서 종래의 연구들을 보면 외동이에 대한 연구들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에 대하여 연구해왔지만,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에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외동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동이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유일한 초기 사회화의 수단이 되는데, 부모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부모의 사회계층에 대한 외동이에 대한 연구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회계층에 따른 외동이의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대부분 외동이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형제유무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역할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단지 도구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와서는 어머니의 표현적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며 부모의 역할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외동이와 형제아가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살펴보고자한다. 또한 사회계층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 외동이의 양육과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른 외동이와 형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양육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 2)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른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형제자매는 지지자,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 조화롭지 못한 가정에서 중요한 지지를 제공한다. Azmitia와 Hersser(1993)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순위 형제는 교사와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동생은 학습자와 추종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형제유무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Gardner 등은 외동이는 모든 면에서 장애를 가지며, 외동이는 형제아가 지닌 동일한 적응능력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김재은, 1997 재인용).

따라서 외동이는 혼자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만이 특별하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줄 형제자매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숙하여 외롭고 제멋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긴다. 이와 같이 외동이는 형제아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덜 협동적이며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형제관계는 아동에게 결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형제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견해이다(송나리, 1995).

그러나 Hurlock은 외동이가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인간적인 면의 발달이 더딜 우려는 있으나 형제간의 경쟁심이나 질투에 의해 성격이 비뚤어지게 될 가능성은 적은 장점도 있다고 하였다(서희정, 1995 재인용). Tony Falbo는 외동이 집단과 형제아 집단의 개인 성격을 비교한 결과 외동이 집단에서 오히려 성취욕 및 자존심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변은수, 1990 재인용).

이상과 같이 형제의 유무에 의한 영향을 제각기 다르게 보고하고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외동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이 크게 바뀌어 지고 있다. Boney는 “형제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외동이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86 재인용). 따라서 형제의 존재 또는 부재가 인성발달에 어떤 역할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것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외동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잘 적응된 사람으로 발달하는 것은 형제의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가장 최근의 주장들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는 달리 지각될 수 있다. Schaefer(1965)는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자녀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여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한 집단이 절대적·통제적이라고 지각

한 집단보다 좋은 적응력을 나타냈다(유영희, 1980).

외동아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유일한 초기 사회화의 수단이 되며, 형제아의 부모자녀관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형제아는 또 다른 형제의 출생으로 새로운 관계가 첨가되어 부모태도의 미묘한 변화를 겪게 되지만, 외동아는 부모관계의 변화보다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외동아에 대한 부모자녀관계는 학자들마다 달리 해석되고 있다.

외동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외동아는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외동아에게 집중되고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모든 주의 환경으로부터 과보호를 받기 쉬운데, 이러한 영향으로 자녀는 책임감이 없으며 자기 본위이고 사회성이 결핍될 수 있다. 또한 무슨 일든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나 성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소희 외, 2003).

이와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외동아는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물질적, 정신적 배려 및 기대를 한 몸에 받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자존심도 높으며, 성공에 대한 집착도 커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외동아와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김진남(1987)은 외동아 어머니가 두 자녀 이상의 어머니보다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과보호나 자녀중심적 태도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외동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더 과보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낮을수록 자유방임에 치우쳐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과보호하고 자녀 중심적 태도를 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Deluics(1987)는 4세, 8세, 16세 아동의 아버지 176명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 양육실태, 태도, 아버지의 역할 참여와 만족을 평가한 결과 성별에 따른 아동양육실태에 있어서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수용적이고 덜 통제적이라고 하였다(조성자, 1996 재인용).

Endsley(1979)는 높은 권위를 가진 부모보다는 낮은 권위를 가진 부모가 아동과 더 자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아동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더 많은 탐색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녀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수, 1997; 최은석, 1997).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사회계층에 따라 다른 성취 기대와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외동아와 형제아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들 외동아의 경우도 사회계층에 따라 부모에 의해 다르게 취급받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외동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연구는 출생순위나 가족크기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다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외동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문화나 측정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외동아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외동이 갖기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학령 전거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외동이인 경우 사회성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정승길, 1996)고 본 반면, 우리나라의 외동이에 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서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김정아, 1990; 송나리, 박성연, 1993)와 여전히 형제아의 사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김병태, 1997; 정유자, 1999). 또한 외동이가 형제아보다 사회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떨어지며(류향자, 1999), 이시형(2000)에 따르면 외동이는 외톨이가 될 확률이 여러 자녀의 가정보다 훨씬 많아 외톨이 중에서 17.4%가 외동이인 반면 친구가 많은 학생 중 외동이인 경우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3. 6. 17.). 김숙경(1989)의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 영역 중 자율성에서만 외동이가 형제아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고 협동성, 자기중심성, 대인적응성에 있어서는 형제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외동이의 배경변인별로 사회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사회성 점수를 나타냈다.

사회계층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연구를 보면, Gottman, Gonso와 Rasmussen(1975)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개념을 연구하기 위하여 초등 3, 4학년 중류층과 하류층에 속한 아동 198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인기도 관계를 조사했는데 사회적 능력 하위요인 6가지 모두에서 중류층의 아동이 하류층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였다. 박웅임(1988)의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보다 풍부한 가족과 경험을 제공하여 아동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고 낯선 상황에 더 잘 적응하고 협력적이고,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과 비협조적인 반응을 적게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부의 학력별로 아동의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성의 하위요소인 근면성, 자율성, 사교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조성호, 1998).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연구대상의 표집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5개를 선정하였고, 학령기 아동 중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총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미응답 및 부적합한 설문문을 제외한 총 42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도구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이종승과 오성심(1982)이 제작한 것으로, Schaefer(1959)가 제작한 양육차원 외에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2개의 차원을 더 유형화하여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개의 차원과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아동의 수준에 맞도록 문항을 적절하게 수정하였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하여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부모를 구분하여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고, '항상 그렇다'는 4점, '자주 그렇다'는 3점, '가끔 그렇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을 주었고, 평균점수는 1점에서 4점 범위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84이다.

2) 사회정서발달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행동과학연구소(1978)가 개발한 것을 이대균(1990)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사회정서 발달 평정 척도를 고학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5개 하위 영역은 내적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이며, 각 하위 영역별로 9문항씩 총 45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를 연구자가 아동에 맞게 문항을 적절하게 수정하였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문항을 제거하여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여, '항상 그렇다'는 4점, '자주 그렇다'는 3점, '가끔 그렇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을 주었고, 평균점수는 1점에서 4점 범위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서 발달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91이다.

3) 사회계층에 따른 분류

사회계층의 측정을 위해서는 미국 인구통계국의 S.E.S.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한 유명익(1993)의 계층분류 기준과 신수미(2002), 백미진(2002)의 아동이 생각하는 가정의 생활수준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소득범주, 직업범주, 교육범주, 아동이 지각하는 생활수준의 가중치를 주어 90-99점은 상류층, 70-89점은 중상류층, 45-69점은 중하류층, 44점 이하는 하류층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방법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둘째,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외동이와 형제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 way ANOVA)을 사용하였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동이(Only Child) : 남·녀 형제의 구별 없이 가정에서 단 하나만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말하며, 외동아 혹은 외동이라고도 한다.

(2) 형제아 (Sibling Child) : 출생순위나 형제자매의 성별구성과는 상관없이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서울,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적은 수의 대상에서 얻은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형태, 거주환경, 외동이가 된 배경 등을 고려해 광범위하게 연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전체 대상자는 426명으로 그중 외동이가 174명(40.8%)이고 형제아가 252명(59.2%)이고, 성별은 전체 남학생이 207명(48.8%), 여학생이 217명(51.2%)으로 나타났다. 외동이와 형제아를 구분하여 성별을 살펴보면, 외동이는 남학생이 95명(55.2%), 여학생 77명(44.8%)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많았고, 형제아는 남학생 112명(44.4%), 여학생이 140명(55.6%)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많았다. 아동의 학년은 전체 4학년이 162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학년이 154명(36.2%), 6학년이 109명(2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범주	외동이 (N=174)		형제아 (N=252)		합 계	
			N	%	N	%	N	%
아동	성별	남	95	55.2	112	44.4	207	48.8
		여	77	44.8	140	55.6	217	51.2
	학년	4학년	89	51.5	73	29.0	162	38.1
		5학년	62	35.8	92	36.5	154	36.2
		6학년	22	12.7	87	34.5	109	25.6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22	12.6	20	7.9	42	9.9
		36-40세	94	54.0	116	46.0	210	49.3
		41-45세	52	29.9	109	43.3	161	37.8
		46세 이상	6	3.4	7	2.8	13	3.1
	학력	고졸 이하	53	32.7	95	39.9	148	37.0
		대졸	103	63.6	127	53.4	230	57.5
		대학원졸	6	3.7	16	6.7	22	5.5
	직업	주부	78	44.8	138	55.4	216	51.1
		단순노무직	3	1.7	4	1.6	7	1.7
		자영업	23	13.2	25	10.0	48	11.3
		기능관련 근로직	9	5.2	7	2.8	16	3.8
		판매·서비스직	13	7.5	10	4.0	23	5.4
		사무·기술직	20	11.5	29	11.6	49	11.6
		전문·경영관리직	28	16.1	36	14.5	64	15.1

구분		범주	외동이 (N=174)		형제아 (N=252)		합 계	
			N	%	N	%	N	%
아버지	연령	35세 이하	6	3.4	6	2.4	12	2.8
		36-40세	37	21.3	48	19.0	85	20.0
		41-45세	112	64.4	169	67.1	281	66.0
		46세 이상	19	10.9	29	11.5	48	11.2
	학력	고졸이하	34	21.2	57	24.0	91	22.9
		대졸	115	71.9	154	65.0	269	67.8
		대학원졸	11	6.9	26	11.0	37	9.3
	직업	무직	1	0.6	4	1.6	5	1.2
		단순노무직	4	2.4	5	2.0	9	2.1
		자영업	20	12.3	20	8.0	40	9.4
		기능관련 근로직	30	18.4	51	20.3	81	19.1
		판매·서비스직	9	5.5	4	1.6	13	3.1
		사무·기술직	72	44.1	106	42.2	178	42.0
		전문·경영관리직	37	22.7	61	24.3	98	23.1
		부모 한달수입	100만원 이하	12	10.9	3	2.0	15
101-200만원	21		19.0	32	21.2	53	20.3	
201-300만원	28		25.4	37	24.5	65	24.9	
301-400만원	21		19.1	33	21.8	54	20.7	
401-500만원	11		10.0	19	12.6	30	11.5	
500만원 이상	17		15.4	27	17.8	44	16.9	
사회계층	상류층	12	6.9	21	8.3	33	7.7	
	중상류층	78	44.8	95	37.7	173	40.6	
	중하류층	68	39.1	122	48.4	190	44.6	
	하류층	16	9.2	14	5.6	30	7.0	

부모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후반(49.3%)이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대졸이 230명(57.5%)으로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40대 초반(66.0%)이 주를 이루며 교육수준은 대졸(67.8%)로 대부분이 학력이 높았고 직업은 사무직과 기술직(42.0%)이 가장 많았다.

외동아와 형제아 전체를 사회계층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상류층은 33명(7.7%), 중상류층은 173명(40.6%), 중하류층은 190명(44.6%), 하류층은 30명(7.0%)로 구성되어 있다.

2. 사회계층에 따른 외동아와 형제아의 부모양육태도 비교

1) 사회계층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 비교

사회계층에 따른 외동아와 형제아의 아버지 양육태도의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평균 점수에서 볼 때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 중하류층 외동이(M=2.80)가, 자율적인 양육태도에서는 하류층 형제아(M=2.79)가, 성취적인 양육태도에서는 하류층 형제아(M=2.55), 합리적인 양육태도에서는 중하류층 외동이(M=3.18)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2>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상류층		중상류층		중하류층		하류층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애정-적대	외동이	2.63	0.27	2.76	0.34	2.80	0.32	2.79	0.34	2.77	0.33
	형제아	2.58	0.32	2.72	0.29	2.77	0.32	2.79	0.43	2.74	0.32
자율-통제	외동이	2.63	0.27	2.74	0.33	2.72	0.43	2.67	0.36	2.72	0.37
	형제아	2.65	0.39	2.73	0.30	2.77	0.37	2.79	0.40	2.75	0.35
성취-비성취	외동이	2.24	0.31	2.45	0.37	2.40	0.43	2.53	0.38	2.42	0.40
	형제아	2.42	0.43	2.42	0.37	2.48	0.38	2.55	0.55	2.46	0.39
합리-비합리	외동이	3.09	0.32	3.08	0.30	3.18	0.34	3.16	0.44	3.12	0.33
	형제아	3.08	0.34	3.11	0.31	3.11	0.36	3.06	0.35	3.10	0.34

<표 3>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

구분	아버지 양육태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형제유무	애정-적대	0.05	1	0.05	0.53	
	자율-통제	0.12		0.12	0.92	
	성취-비성취	0.20		0.20	1.31	
	합리-비합리	0.07		0.07	0.60	
사회계층	애정-적대	0.93	3	0.31	3.04*	c > a
	자율-통제	0.28		0.09	0.72	
	성취-비성취	0.69		0.23	1.48	
	합리-비합리	0.26		0.09	0.78	
형제유무*사회계층	애정-적대	0.01	3	0.04	0.04	
	자율-통제	0.14		0.05	0.37	
	성취-비성취	0.41		0.14	0.88	
	합리-비합리	0.23		0.08	0.70	

* $p < .05$

아버지 양육태도에서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하류층이 상류층보다 아동에게 더 애

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제유무와 사회계층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2) 사회계층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 비교

사회계층에 따른 외동이와 형제아의 어머니 양육태도의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상류층		중상류층		중하류층		하류층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애정-적대	외동이	2.62	0.26	2.62	0.33	2.60	0.34	2.69	0.38	2.62	0.33
	형제아	2.49	0.22	2.59	0.28	2.60	0.31	2.59	0.41	2.59	0.30
자율-통제	외동이	2.68	0.34	2.70	0.40	2.64	0.42	2.61	0.41	2.67	0.40
	형제아	2.62	0.32	2.63	0.36	2.72	0.37	2.67	0.48	2.68	0.37
성취-비성취	외동이	2.11	0.23	2.37	0.42	2.36	0.41	2.35	0.38	2.35	0.41
	형제아	2.36	0.38	2.35	0.35	2.37	0.36	2.42	0.49	2.37	0.36
합리-비합리	외동이	3.13	0.28	2.98	0.37	3.14	0.31	3.16	0.45	3.07	0.36
	형제아	3.13	0.32	3.02	0.40	3.05	0.39	2.97	0.36	3.04	0.39

평균 점수에서 볼 때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 하류층 외동이(M=2.69)가, 자율적인 양육태도에서는 중하류층 형제아(M=2.72)가, 성취적인 양육태도에서는 하류층 형제아(M=2.42), 합리적인 양육태도에서는 하류층 외동이(M=3.16)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어머니 양육태도에서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인 양육태도($F=2.66$, $df=3$, $p<.05$)에서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하류층이 중상류층보다 아동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제유무와 사회계층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

구분	어머니 양육태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Scheffe
형제유무	애정-적대	0.23	1	0.23	2.35	
	자율-통제	0.08	1	0.08	0.01	
	성취-비성취	0.32	1	0.32	2.19	
	합리-비합리	0.16	1	0.16	1.17	
사회계층	애정-적대	0.11	3	0.04	0.37	c>b
	자율-통제	0.07	3	0.02	0.15	
	성취-비성취	0.52	3	0.17	1.20	
	합리-비합리	1.11	3	0.37	2.66*	
형제유무*사회계층	애정-적대	0.17	3	0.06	0.57	
	자율-통제	0.49	3	0.16	1.11	
	성취-비성취	0.48	3	0.16	1.09	
	합리-비합리	0.55	3	0.18	1.32	

* p<.05

3. 사회계층에 따른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정서발달 비교

사회계층에 따른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정서발달의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른 사회정서발달

구 분		상류층		중상류층		중하류층		하류층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내적통제	외동이	2.20	0.66	2.09	0.50	2.13	0.43	2.56	0.47	2.16	0.50
	형제아	2.25	0.54	2.13	0.50	2.15	0.46	2.22	0.44	2.15	0.48
또래와의 상호작용	외동이	1.76	0.46	1.88	0.49	2.02	0.53	1.97	0.48	1.94	0.50
	형제아	1.91	0.39	1.95	0.50	2.03	0.49	2.10	0.42	2.00	0.48
학교 안정감	외동이	1.96	0.42	2.05	0.47	2.21	0.54	2.06	0.44	2.11	0.50
	형제아	2.12	0.52	2.04	0.55	2.12	0.53	2.13	0.50	2.09	0.53
성취동기	외동이	1.87	.056	2.03	0.58	2.24	0.53	2.17	0.41	2.11	0.55
	형제아	2.22	0.54	2.14	0.52	2.22	0.54	2.30	0.47	2.19	0.53
호기심	외동이	1.86	0.71	2.15	0.64	2.27	0.64	2.23	0.50	2.19	0.64
	형제아	2.43	0.66	2.18	0.59	2.44	0.61	2.54	0.66	2.34	0.62

평균 점수에서 볼 때 내적통제에서 하류층 외동이(M=2.56)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는 하류층 형제아(M=2.10)가, 학교안정감에서는 중하류층 외동이(M=2.21), 성취동기에서는 하류층 형제아(M=2.30), 호기심에서는 하류층 형제아(M=2.54)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사회정서발달에서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는 사회정서발달의 하위요인 중에서 호기심만($p < .05$)이 외동이와 형제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는 사회정서발달 요인 중 내적통제($p < .05$), 성취동기($p < .05$), 호기심($p <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적통제에서는 하류층의 아동이 중상류층의 아동보다 내적통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동기와 호기심에서는 중하류층의 아동이 중상류층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형제유무와 사회계층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유무와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형제유무와 사회계층에 따른 사회정서발달

구분	사회정서발달	제공합	df	평균제공	F	Scheffe
형제유무	내적통제	0.17	1	0.17	0.72	
	또래와의 상호작용	0.40		0.40	1.67	
	학교안정감	0.50		0.05	0.19	
	성취동기	1.05		1.05	3.64	
	호기심	3.61		3.61	9.38*	
사회계층	내적통제	2.15	3	0.72	3.07*	d>b
	또래와의 상호작용	1.65		0.55	2.30	
	학교안정감	1.35		0.45	1.68	
	성취동기	2.46		0.82	2.84*	c>b
	호기심	4.00		1.33	3.47*	c>b
형제유무*사회계층	내적통제	0.95	3	0.32	1.35	
	또래와의 상호작용	0.22		0.07	0.30	
	학교안정감	0.55		0.18	0.68	
	성취동기	1.01		0.34	1.16	
	호기심	2.20		0.73	1.91	

* $p < .05$

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외동이의 부모자녀관계와 외동이의 사회정서발달의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동이와 형제아의 부모양육특성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계층에 따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는 중하류층의 아버지가 상류층의 아버지보다 아동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중하류층이 중상류층보다 아동에게 더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제유무와 사회계층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살펴본 결과 형제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형제아가 외동이보다 호기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에 따라 살펴본 결과 하류층의 아동이 중상류층의 아동보다 내적통제성이 더 높았고, 성취동기와 호기심에서는 중하류층의 아동이 중상류층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형제유무와 사회계층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외동이의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양육태도에서 외동이와 형제아의 차이는 대부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에서는 외동이나 형제아 모두 중하류층의 아버지가 상류층의 아버지보다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고, 중하류층의 어머니가 중상류층의 어머니보다 더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ndsley(1979)는 높은 권위를 가진 부모보다는 낮은 권위를 가진 부모가 아동과 더 자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아동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더 많은 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밝힌 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외동이의 사회정서발달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사회정서발달에서 형제아가 외동이보다 호

기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계층에서는 외동이나 형제아나 상관없이 하류층의 아동이 중상류층의 아동보다 내적통제성이 더 높았고, 중하류층의 아동이 중상류층의 아동보다 성취동기와 호기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사회성에서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게 나타난 다른 연구결과(Gottman, Gonso, & Rasmussen, 1975; 박웅임, 1988; 조성호, 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기여하는 활동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 즉 아동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기질, 인지능력 등이 환경 못지않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아동기의 사회정서발달에 있어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것은 아동에게 다른 사람과 환경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부모양육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올바른 역할과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과 부모교육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외동이든지 형제아든지 아동에게는 책임감을 키워 주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일과 해 줄 수 없는 일을 구별하여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 처리하도록 해주어야 하고, 혼자 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긍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자라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성을 살려주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부모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과 놀면서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사회에서는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상담시설,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과 부모가 사회단체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병태(1997).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1989)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 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제10권, 43-63.
- 김이수(1998).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학교 참여도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97). 개정 유아의 발달심리. 창지사.
- 김진남(1987). 외동아와 두자녀 이상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가족계획협회(1986). 축복 속에 자녀 하나. 동아일보. 2003. 6. 17.
- 류명희(2001). 외동아와 형제아의 감성지능과 학교 적응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향자(1999). 외동아와 형제아의 성격 특성과 학교 적응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임(1988).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백미진(2002). 사회계층별 학령기 아동의 분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희정(1995).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나리(1993). 외동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성옥(1997).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 발달과 아버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미(2002). 사회계층에 따른 초등학교 아동의 고민유형과 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동두(1993). 형제유무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성격 특성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명희(1993). 의복의 과시적 소비현상과 사회계층과의 관계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희(1980). 아동행동에 대한 지각과 아동의 적응.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균(1990). 국민학교 1학년 아동에 대한 소집단활동중심 교수 방법의 적용과 효과.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희 외(2003).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 정승길(1996). 한 자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정유자(1999). 초등학교 외동이의 협동성과 사회성 및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보. 1995. 11. 7.

조선일보. 2003. 8. 15.

조진선(1999). 아동의 형제유무와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석(1997). 사회계층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2). 한국의 사회지표.

Azmitia, M. & Hesser, J.(1993). Why sibling are important agents of connitive development: A comparison of sibling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64, 430-444.

Cowan, M. L.(1992). The Effects of Take-Home Science Acitivities on Curiosity Levels. Attitudes towards Science,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A Thesis Submitted to the Faculty of Graduates School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Endsley, R. C., Hutcherson, M. A., Garner, A. P., & Martin, M. F.(1979). Interrelationships among selected maternal behaviors, authoritarianism, and preschool children's verbal and nonverbal curiosity. *Child Development*, 50, 331-339.

Gordon, Thomas & Sand, Judith Gordon(1989). 부모역할 배워지는 것인가. 한국심리상담연구소.

Gottman, J. M., Gonso. J. & Rasmussen, B.(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Newman, Susan(2001). *Parenting an Only Child*. Random House.